

정초부터 사료 값 인상... 사료곡물 안정적 확보대책 '시급'

할당관세 추가인하,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사료업체·양돈농가 자구노력 병행돼야

08년 새해를 맞이하여 배합사료업체가 일제히 사료가격 인상을 발표한 가운데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할당관세 추가인하 등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업체들이 08년을 맞아 배합사료 가격을 업체별·품목별로 일제히 5.5~9% 인상했다. 사료업체들은 최근 미국산 옥수수가격이 톤당 300달러를 넘어서는 등 국제곡물가격과 해상운임비가 급상승해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6년 10월 이후 오르기 시작한 배합사료가격은 이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30%가 넘게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료가 추가 인상 가능성... 양돈농가 경영악화 부채질하나?

이에 따라 올해는 생산성이 향상되어도 사료 값 상승세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 배합사료업체들이 상당수의 옥수수를 미국에서 수입하는 상황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구급 20일 미국산 바이오 연료의 생산을 증대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옥수수가격의 안정화는

물론 원료확보에도 어려움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 추가 인상도 예고되고 있다. 사료업체는 현재 kg당 120원인 해상운임비가 160~180원까지 오르는 등 앞으로도 사료가격을 추가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사료가격의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에 양돈농가들의 근심은 더욱 늘어만 가고 있다.

돼지 kg당 생산비는 3,200원을 웃돌고 있지만 돈가는 4일 현재 2,989원에 그치는 등 현재 양돈장의 적자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료 값 인상은 양돈농가의 경영악화를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사료가 인상, 양돈농가 생존대책 조속 마련돼야

따라서 양돈농가들은 FTA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소모성질환 등으로 피해를 받는 양돈농가에 대한 생존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월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사료업체는 양돈농가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정부는 양돈농가가 살아남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제곡물가 및 유가, 해상운임비 상승으로 사료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사료업체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지난해만 해도 3차례 가격 인상이 있었다며, 각종 대내외적인 압박으로 위기에 처한 양돈농가의 생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장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후기사료를 반드시 급여하는 등 각 구간에 맞는 배합사

료 사용과 허실량을 줄여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사료업체들도 불필요한 경영비를 절감하면서 사료 값 인상을 최소화해야 하며, 정부에서는 사료안정기금을 조성하고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도 항구적 법률로 제정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과 해외자원개발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원료수급을 원활히 하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정부, '국제곡물가격 상승대응 T/F팀' 구성 운영

국제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국제곡물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제곡물가격 상승 T/F팀'을 상시 운영키로 하고, 지난 1월 8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업계 및 학계 등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돈협회와 사료협회 등 업계대표와 학계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국제곡물가격 상승대응 T/F팀'은 그동안 국제곡물 수급 점검반을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T/F팀으로 격상하고, T/F팀내 '식량대책반과 축산·사료대책반, 해외농업개발반' 3개반을 구성되어 반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T/F팀은 농림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식량정책국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식량대책반 반장은 식량정책과장이, 축산·사료대책반 반장은 축산경영과장이, 해외농업개발반 반장은 국제협력과장이 각각 맡고 있으며, '식량대책반'은 대책총괄반으로 곡물수급 현황 등을 파악하고 중장기 곡물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구체화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으며, '축산·사료대책반'은 사료곡물 수급현황 및 사료가격 동향을 파악하여 사료가격 인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여기에는 양돈협회와 농협중앙회, 사료협회 등이 참여하여 대책 마련에 나서게 된다. '해외농업개발반'은 해외농업개발 사업

의 지원체계 구축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부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너지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 주산지의 기상여건 등 수급요인이 악화된 가운데 국제해상운임 상승,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등 곡물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동장기 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밀·옥수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 곡물확보 능력제고, 국내에서 적정 비축물량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들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실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료업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돈**